

낮선 조합이 '특별한 상상'을 부른다

이태원 경리단길 ‘스펙트럼 갤러리’ 개관
 광수영,아나킴 2인 개관전 11월 5일까지

조상인 기자 | 2020-10-20 17:12:38 | 문화

▶ 경리단길, 스펙트럼 갤러리, 광수영, 아나킴



광수영 작품. /사진제공=스펙트럼갤러리

맛집과 카페 일색에서 갤러리들이 속속 입점하면서 문화벨트로 새단장 중인 경리단길에 최근 ‘스펙트럼 갤러리’가 개관했다.

스펙트럼갤러리는 개관전으로 광수영, 아나킴(Ana Kim) 작가의 2인전 ‘Stubborn Visionaries’를 기획해 오는 11월 5일까지 개최한다. 정찬민 스펙트럼갤러리 대표는 “젊은 두 예술가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신선한 시각이 감상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면서 “누군가의 공감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고집스러운 젊은 공상가들의 세계관을 경험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란한 색채의 광수영 작품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이지만 결코 현실적이지 않다. 각각 다른 상황에서 가져온 것 같은 이미지들이 화려한 색을 통해 연결되면서 낮선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아나킴 작품 전시 전경. /사진제공=스펙트럼갤러리

현실을 초월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미지를 한 화면에 구현하는 것은 아나킴 작가도 마찬가지다. 빙하를 배경에 두고 걸어 나오는 표범이나, 작렬하는 태양을 뒤로 둔 백곰 등 일반적인 생태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화면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존과 화합”이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